

대한민국 1퍼센트,
그러나 사실은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김현미 지음 | 또하나의문화 | 288쪽 | 값 12,000원



거침없는 풍자와
우화의 향연

《돼지들에게》
최영미 지음 | 실천문학 | 101쪽 | 값 8,000원

1퍼센트.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비율이다.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이를 숫자로 환산하면 50만 명 이상이다. 1999년 이후 급증한 결혼 이주자들이 2004년까지 20만 명에 달하고 한국인, 외국인,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이 한국 가족의 한 유형이 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외국인자녀를 포함하면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은 지난 10년 동안에 있었던 한국사회의 변화, 특히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글로벌화'에 주목한 책이다. '신자유주의'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한류', 그리고 '원정 출산' '조기 유학', '기러기 가족', '결혼 이주자' 등 "한국의 전통인 '정착성'이나 '결속'의 이미지 대신 예측할 수 없는 이동성"이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여전히 '영토'에 기반을 둔 집단주의적 국민 정체성은 자신의 개별성을 표현하고 타자를 존중하는 개인을 만들어 내는 데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문화번역'이라는 실천적 개념을 도입해 급변하는 일상의 경험을 글로벌리즘과 연결해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문화번역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의미 있는 해석을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1부에서 저자는 한국사회의 외국인 마을이나 이산 동네를 체험하면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양한 문화적 타자들의 삶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2부에서는 글로벌 자본과 노동의 경합이 일어나는 글로벌 현장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3부는 경계를 넘어 끊임없이 유동하는 '초국가적' 이미지의 흐름을 다룬다. 월드컵을 '문화적 이벤트'로 만든 여성들이 보여준 축구와 축구 선수들에 대한 열광이나, 한국 드라마를 소비하는 대만과 일본의 여성들이 만들어 내는 팬덤의 의미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한다.

신동섭 기자

두 번째 시집 《꿈의 페달을 밟고》이후 7년 만에 나온 최영미의 시집. 시인 특유의 현실에 대한 정열적인 탐구가 풍자의 형식으로 완성되었다는 점이 이번 시집의 가장 큰 특징이다. 대담하고 거침없는 언어는 우화의 형식을 빌려 더 정교해졌다. 서정적인 감성, 세련된 유희, 생생한 비유와 섬세하면서도 폐부를 찌르는 언어로 위선적인 한국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하는 불온한 시들이 향연을 벌인다.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거짓과 속임수에 대한 공격이 불쾌하거나 불편하기보다는, 깔깔거리며 무릎을 치게 되는 재미와 후련함이 배어 나온다. 그러나 한 편으론 맘 한쪽이 무거워지고 서늘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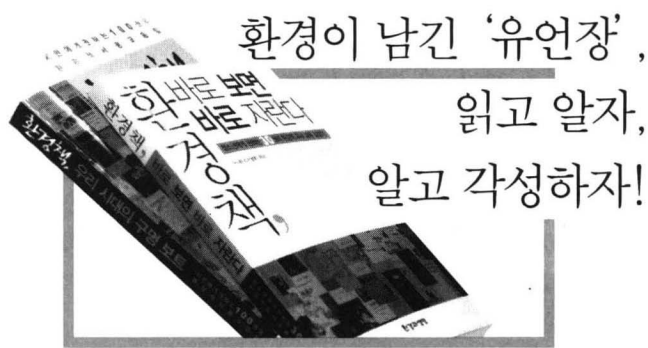
시집은 풍자로 일관한 '돼지들에게' 연작, 축구에 관한 시편,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시편, 일상의 절망과 재발견을 담고 있는 서정 시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1부 '순진의 시련'에 담긴 '돼지들에게' 연작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이 시집의 표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시들은 통쾌함과 뜨거움의 양가적 감정을 선사한다. '돼지'와 '여우'로 비유되는 탐욕과 교활, 진주의 순수를 노리는 돼지와 여우, 진주의 러브 스토리에 이르면 그 풍자는 극에 달한다. 솔직하고 당당한 그녀의 풍자는 빛을 발한다.

이 시집이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것은 시인의 자전적인 고백,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떠난 은둔 생활에서 돌아와 다시 일상의 힘을 믿겠노라고 다짐하는, 시인의 육성이 진실하고 절실하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떠나 있던 동안 '침묵의 시간'을 거쳐 '어느덧 순진을 벗은' 시인은 강철처럼 단련되어 단단해진 언어를 무기로 '인간의 시간'속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한다. '자신의 약점을 보이지 않는 시를 믿지 않는다'는 시인의 성숙한 시선이 '인간의 시간'을 살아 내면서 토해낼 언어들이 기다려진다.

김지희 기자



《짧은 영광, 그래서 더 슬픈 영혼》
전원경 지음 | 시공아트 | 324쪽 | 값 13,000원



《환경책, 우리 시대의 구명 보트》
최성각 · 박병상 · 장성익 외 12인 지음 | (사)환경과생명 | 240쪽
《환경책, 바로 보면 바로 자란다》
김정숙 · 이수종 지음 | (사)환경과생명 | 204쪽

《짧은 영광, 그래서 더 슬픈 영혼》을 읽고 나면 “평범한 게 최고”라는 말을 안 할 수 없다. 음악, 무용 등 문화 관련 글을 써왔던 저자는 대부분 30년 길어야 40년 남짓한 인생을 살다가 안타깝게 요절한 열한 명의 예술가들의 삶을 꼼꼼하게 적으면서 그들 인생에 남모르는 고통과 번민이 있었음을 밝혀낸다. 장국영, 존 레논, 빌리 홀리데이, 바슬라프 니진스키 등 무용, 음악, 미술, 연기 등 각 분야에서 ‘한 예술’ 했던 그들이다. 단순히 가난이나 정신적 고뇌에 따른 고통 때문만은 아니다. 이들에게 인력으로는 제어 못할 광기와 난폭한 성격, 정신질환,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마, 마약을 향한 끝없는 욕심 등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놓여 있었다.

저자는 비교적 객관적인 자료들을 동원, 그 어떤 평전보다 읽는 이의 마음을 자극하는 예술가 평전을 완성한다. 첫 장을 연 미남스타 장국영은 자신의 ‘일반적이지 않은 이미지’로 고민한 것으로 적혀 있다. 세상은 “동성애자 애인과 불화 때문”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저자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 그가 나이가 들어도 늙지 않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배우로써 고민하고 있었던 흔적들을 내밀어 보인다. 나뭇결처럼 어둡고 부드러운 음색을 자랑했던 빌리 홀리데이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간 영혼이다. 뉴욕 할렘가의 어린 창녀에서 가수로 그리고 하나같이 폭행을 일삼는 세 남편과 살아갔던 그에겐 노래 외에는 웃을 일이 없었다. 이들에 비하면 광기에 사로잡혀 하늘을 찌를 만한 오만함을 보여줬던 에곤 실레, 스타의식이 남달랐던 바스키아의 죽음은 덜 안타깝다.

이 책은 예술과 인생간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며 사유거리를 풍부하게 남겨놓는다. 무덤 속에 있는 이들에겐 미안한 말이지만 지극히 평범한 우리네 인생을 최고로 행복한 인생으로 둔갑시켜주는 마력을 갖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김청연 기자

기술발전과 생활의 편리가 만들어낸 미세먼지는 우리 도처에 가득 차 서서히 생명을 갉아먹고, 이런 도시에서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은 ‘아픈 아이들의 세대’를 이어간다. 아무도 불행을 의식하지 못한다. 환경책이 중요하고 또 읽어야 하는 이유다. 《환경책, 우리 시대의 구명 보트》와 《환경책, 바로 보면 바로 자란다》는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사)환경과생명이 추진하는 환경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제작된 책이다.

《환경책, 우리 시대의 구명 보트》는 시민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100권의 환경책에 대한 서평을 모은 책이다. ‘고전’이라고 부를 만한 명저들로부터 신간들을 두루 망라하면서 지나치게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책들보다는 시민들이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들을 우선시했다. 책 선정과 서평에 참여한 필자들은 책 내용의 진정성과 치열성,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100권의 환경책에 대한 소개와 평가, 함께 읽을 만한 책 목록 등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청소년들에게 권하는 30권의 환경책에 대한 책 소개, 활용 방안, 관련 도서 등의 자료를 꼼꼼하게 담은 《환경책, 바로 보면 바로 자란다》는 중요한 독서교육 길잡이다. 현직 교사가 집필한 이 책은 총 30권의 환경책을 생태친화적인 삶에 꼭 필요한 여섯 개의 주제로 나누고 있다. 책 소개에 그치지 않고 책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관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어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도 유용하다.

수많은 환경책, 그러나 그 모두를 다 읽을 수 없다. 두 책은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환경책을 읽는 사람들과,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의 현실과 자신의 삶을 맑은 눈으로 성찰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면, 이 책의 소임은 완수한 것이다.

홍이현 기자